

4. 토양서식성 날개응애류의 생물지표이용 가능성

이 준호*, 정 철의, 최 성식¹

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, ¹원광대학교농학과

본 연구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남산과 광릉 활엽수림지역 날개응애류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성이 있는 생물지표종을 선별하였다. 생물지표종은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서식처의 환경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서식처 지표종과 특정 환경인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환경인자 지표종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첫째, 생물군집을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이어서 그 종이 소멸되거나 이주하면 군집 구조에 이상이 초래되는 종을 기준으로 하여(Price, 1984 ; Mayer 등, 1992 ; Bond, 1993) 특정 서식처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선별하였다. 남산에서 *Lohmannia coreana*, *Ceratozetes* sp., *Rostrozetes pulcherimus*, *Lasiobelba remota*를, 광릉조사지에서는 *Boreozetes* sp., *Boreozetes donghaksensis*, *Cultroribula tridentata*를 선별 하였다.

둘째, 군집 수준에서 토양 산도에 대한 날개응애류 군집의 반응은 일관되지 않았으나 군집내에서 우점을 이루는 몇 종은 토양산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양적 반응을 보였다. 남산에서는 *Lasiobelba remota*, *Ceratozetes* sp., 광릉에서는 *Tectocephus tus*, *Boreozetes* sp.를 선별하였으며, 남산과 광릉 두 지역에서 *Oppia* sp3.은 토양산도(pH)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.